

구강점막의 착색 (Oral pigmentation)

구강점막과 피부에 색소가 침착되는 것은 내인성 또는 외인성에 의한 것이다. 내인성의 전형적인 예는 흑인 및 일부 유럽인(코카시인)에게서 볼 수 있으며, 이러한 내인성 색소침착은 햇빛에 장기 노출에 대한 보호작용이다. 특히 치과 의사에게 흥미로운 점은 구강점막 및 인접조직에 상당히 다양한 전신질환과 관련되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내분비성질환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.

비정상적 내인성 색소침착

에 대한 정확한 성격은 질병에 따라 다양하나 근본은 melanin(흑색소)이며, 이는 고분자의 불용성 polymer로서 포유동물내에서는 항상 단백질과 결합하게 된다. 색소침착은 덮고 있는 조직의 혈행과 상피에 따라 갈색, 흑청색 및 흑색등 다양하게 나타난다. 대개 인종적 색소침착은 악성도가 없으므로 특별한 치치가 요구되지 않으나 흑색종(melanoma)인 경우 악성도가 높다. 따라서 구강내 소견이 나타난 경우, 내인성 질환인

Addison's질환, Peutz-Jeghers증후군, Pituitary gland의 기능과다, 임신, Neurofibromatosis, Quinacrine hydrochloride(항말라리아제) 장기 투여, Carotenemia, Jaundice등과 외인성인 Bismuthism, Lead 중독, Mercurilism, Argyria, Auric stomatitis, Arsenic, phosphorus poisoning등에서도 색소침착이 나타나므로 감별할 필요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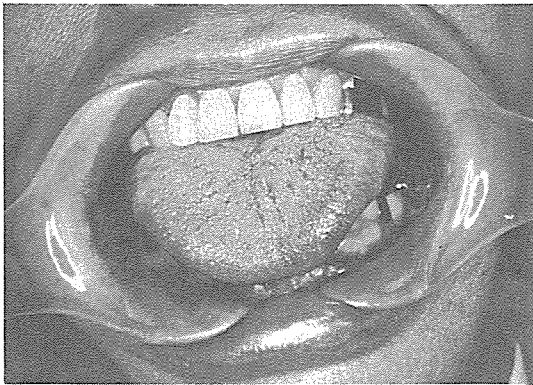


사진 1; 혀의 전방부에 국소적으로 색소침착이 있으나 악성도나 기타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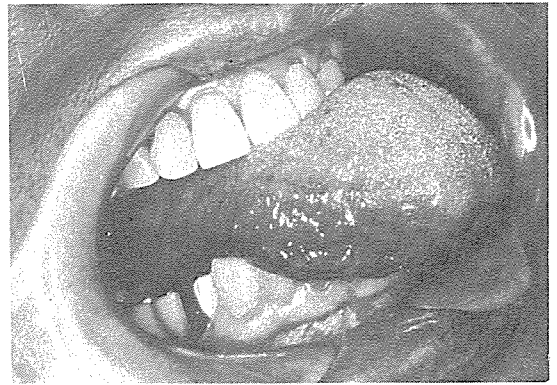


사진 2; 혀에 전체적으로 색소침착을 보여주나 악성도나 기타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음.

“다릅니다”

東明 Gold Casting Alloy · 東明 Amalgam Alloy · 東明 Porcelain Alloy

東 明 合 金

275-4414, 1243 · 277-2875

서울시 중구 수표동 27-1 (세한B/D 708호)